

T O W A R D S   G L O B A L   E M I N E N C E



## 평화 혹은 붕괴, 지구정치의 새 지평을 찾아서

**경희학원**

경희학원 미원평화학술원, 경희대학교 미래문명원, 경희사이버대학교 미래문명원, 경희대학교의료원 의과학문명원

2022년 9월 21일(수)

**경희학원**

제41회 유엔 세계평화의 날 기념  
Peace BAR Festival · 미원 서거 10주기 기념식

## 평화 혹은 붕괴, 지구정치의 새 지평을 찾아서

### 경희학원

“학원의 민주화” “사상의 민주화” “생활의 민주화”를 통해 인간의 인간다운 세상 “문화세계”를 창조하고, 인류의 드넓은 가능성을 열어줍니다. 경희의 설립취지입니다. 경희의 가치는 우주적 사유, 지구적 사유, 인간적 사유의 안목과 실천으로 더 나은 개인과 인류문명의 미래를 함께 여는 것입니다. 학교법인 경희학원은 1949년 건학 이래 설립취지와 가치에 따라 ‘학문과 평화’의 전통을 이어가고, 법인 산하 각급 기관의 바른 경영, 바른 행정을 선도했습니다. 법인 산하에는 경희대학교, 경희대학교의료원(경희의료원, 강동경희대학교병원), 경희사이버대학교, 병설학교(경희고등학교, 경희여자고등학교, 경희중학교, 경희여자중학교, 경희초등학교, 경희유치원)를 두고 있습니다.

## 취 지

### “평화 혹은 붕괴, 지구정치의 새 지평을 찾아서”

빛자루를 손에 든 누군가가 과거를 회상하면,  
가만히 듣고 있던 다른 누군가가 운 좋게도 멀쩡히 살아남은 머리를 열심히 끄덕인다.

— 비스와바 심보르스카의 시 『끝과 시작』 중에서

지구 산업문명이 몰고 온 기후변화와 생태적 파국은 지구사회가 마주한 절박한 현실이다. 지금 우리 현실은 그간 우리가 당연시했던 믿음과 욕망, 인식과 문화를 포함한 ‘그 모든 것’에 관한 깊은 성찰을 요구한다. 이 시대에 주어진 역사적 과업을 위해 우리는 과연 무엇을 해야 하는가.

위기의 핵심을 살피는 혜안이 필요하다. 우주와 지구, 인간을 연결해 우리가 처한 현실을 주시해야 한다. 인간과 타자, 문화와 자연을 분리해온 편협한 인간 본위의 근대 지식으로는 그 한계를 넘어설 수 없다. ‘우리는 과연 무엇인가. 무엇을 구하는 존재인가.’ 이 물음과 함께 인간 존재의 원천을 살펴야 한다.

인간이 파괴한 지구 행성에서 우리의 역할과 책임이 무엇인지 물어야 한다. 인류가 촉발한 환경·생태 해악을 바로잡고, 미래의 지속성, 새로운 가능성을 향한 가치의 새 지평을 찾아 나서야 한다. 이를 위해선 삶의 현장을 새롭게 일궈내는 의식 전환이 필수적이다.

지구시민의 미래를 위한 새로운 정치의 지평을 열어야 한다. 각자도생의 생존 논리, 근시안적 현실정치를 넘어설 지구시민사회의 연대와 결속, 행동이 필요하다. 무한 성장의 신화와 탐욕을 넘어 지구 행성의 파국을 다스릴 지혜와 실천이 필요하다. 자연과 인간, 지구와 문명이 공존·번영할 수 있는 미래의 지평을 열어야 한다.

경희학원은 제41회 유엔 세계평화의 날을 기념하는 Peace BAR Festival(PBF)을 통해 ‘진화 혹은 절멸’이란 시대의 화두와 함께 위기 극복을 위한 실천 방안을 모색한다. 위기 너머 새로운 기회의 창을 찾아 나서는 여정에 미래시민 여러분의 동참을 호소한다.

## 세계평화의 날 제정 배경

세계평화의 날과 해는 1981년 유엔이 제정하면서 정례화됐다. 1981년 코스타리카 산호세에서 개최된 세계대학총장회(International Association of University Presidents, IAUP) 제6차 총회에서 경희의 설립자가 세계평화의 날과 해를 제정하도록 유엔에 요청할 것을 제안했다. IAUP는 이 같은 내용의 코스타리카 결의문을 채택해 유엔에 전달했고, 그해 11월 30일 개최된 제36차 유엔총회에서 만장일치로 세계평화의 날과 해(International Day of Peace, International Year of Peace)를 제정했다.

당시 유엔총회 결의문(Resolution 36/67)에는 세계평화의 날은 “모든 국가와 시민이 평화의 이상理想을 기념하고, 고양하고자” 제정했다. “모든 유엔 회원국, 산하기관과 기구, 지역기구, NGO뿐 아니라 모든 사람이 유엔과의 협력하에, 특히 교육적 수단을 통해 세계평화의 날의 의미를 되새길 것”을 권유한다고 쓰여있다. 유엔은 매년 9월 셋째 화요일을 ‘세계평화의 날’(2001년부터 매년 9월 21일)로, 1986년을 ‘세계평화의 해’로 제정했다.

냉전체제 완화가 인류평화에 이바지할 것이라는 IAUP의 생각은 시의적절했다. 세계평화의 날과 해를 제안할 무렵 참여하게 대립하고 있던 동·서 양 진영은 세계평화의 해가 공표되면서 새로운 시대를 맞이했다. 1986년 1월 1일 레이건 미국 대통령과 고르바초프 소련 공산당 서기장이 신년 평화 메시지(New Year’s Messages of President Reagan and General Secretary Gorbachev, January 1, 1986)를 교환하면서 평화 분위기가 조성됐다. 양국이 추진해오던 군축회담도 진행하면서 인류는 평화의 길로 들어섰다. 이후 핵무기 감축안이 마련되고 지역분쟁을 해결하기 위한 노력이 이어지면서 냉전체제의 긴장이 완화됐다.

## 프로그램

- 주 제** 평화 혹은 붕괴, 지구정치의 새 지평을 찾아서
- 일 시** 2022년 9월 21일 (수) 10:00~15:30 \*세계평화주간 축제 : 2022년 9월 20일(화) ~ 22일(목)
- 장 소** 경희대학교 평화의 전당, 서울·국제 캠퍼스 일원, 온라인 웹캐스트
- 주 최** 경희학원
- 주 관** 경희학원 미원평화학술원, 경희대학교 미래문명원, 경희사이버대학교 미래문명원, 경희대학교의료원 의과학문명원

<b>세계평화의 날· 미원 서거 10주기 기념식</b> 9월 21일(수) 10:00 ~ 10:45	<b>개회</b>	권기봉 경희대학교 평화복지대학원 원장
	<b>세계평화의 날 경과보고</b>	김원수 경희대학교 미래문명원 원장
	<b>영상 상영</b>	미원 서거 10주기 기념 영상 에세이 《전환의 시대, 평화의 책무》
	<b>봉정식</b>	경희학원 설립자 미원 조영식 박사 연설문 선집 『눈을 들어 하늘을 보라 땅을 보라』
	<b>기념 음악</b>	목련화 경희대학교 음악대학
<b>기념 대담</b> 9월 21일(수) 10:45 ~ 11:45	<b>주제</b>	실존의 순간, 전일사관(全一事觀)의 새 물결
	<b>기념 대담</b>	조인원 경희학원 이사장 사회 권기봉 경희대학교 평화복지대학원 원장

<b>미원 서거 10주기 기념 심포지엄</b> 9월 21일(수) 13:00 ~ 13:50	<b>주제</b>	평화는 개선(凱旋)보다 귀하다 - 미원의 철학을 통해 본 평화의 의미 -		
	<b>패널</b>	발제	신진숙	경희대학교 교수
		토론	송재룡	경희학원 전문위원
<b>세계평화의 날 기념 라운드테이블 회의</b> 9월 21일(수) 14:00 ~ 15:30	<b>주제</b>	재앙의 개막, 신생(新生)의 출구를 찾아서		
	<b>영상 상영</b>			
	<b>패널</b>	사회	안병진	경희대학교 교수
	발제	이준이	부산대학교 교수	
		김환석	국민대학교 명예교수	
	토론	신충식	경희대학교 교수	

## 세계평화의 날 · 미원 서거 10주기 기념식 및 기념 대담

2022년 PBF는 제41회 유엔 세계평화의 날과 경희학원 설립자 미원(美源) 조영식 박사 서거 10주기를 기념하는 행사를 함께 개최한다. 《평화 혹은 붕괴, 지구정치의 새 지평을 찾아서》를 대주제로, 우리 모두가 마주한 문명사적 위기를 진단한다. 인간이 지난 수백만 년 진화의 여정 끝에 맞닥뜨린 전례 없는 기후위기, 핵전쟁의 위협과 점증하는 국가폭력, 인구폭증, 식량위기, 물위기, 양극화를 비롯한 지구사회의 난제(planetary aporia)에 주목하며 새로운 문명의 지평을 열어갈 시민의식의 확장을 촉구한다. 설립 이래 경희가 추구해온 ‘문화세계의 창조’ ‘학문과 평화의 전통을 돌아보며 지구정치의 새로운 지평을 여는 전일적 사유와 실천세계의 가능성’을 타진한다.

<b>세계평화의 날 · 미원 서거 10주기 기념식</b> 9월 21일(수) 10:00 ~ 10:45	<b>개회</b>	권기봉 경희대학교 평화복지대학원 원장
	<b>세계평화의 날 경과보고</b>	김원수 경희대학교 미래문명원 원장
	<b>영상 상영</b>	미원 서거 10주기 기념 영상 에세이 《전환의 시대, 평화의 책무》
	<b>봉정식</b>	경희학원 설립자 미원 조영식 박사 연설문 선집 『눈을 들어 하늘을 보라 땅을 보라』
	<b>기념 음악</b>	목련화 경희대학교 음악대학
<b>기념 대담</b> 9월 21일(수) 10:45 ~ 11:45	<b>주제</b>	실존의 순간, 전일사관(全一事觀)의 새 물결
	<b>기념 대담</b>	조인원 경희학원 이사장 사회 권기봉 경희대학교 평화복지대학원 원장

## 미원 서거 10주기 기념 심포지엄

1981년 유엔 세계평화의 날과 해 제정을 제안한 경희학원 설립자 미원 조영식 박사 서거 10주기를 맞아 그의 평화사상을 조명하는 심포지엄을 개최한다. 미원의 평화사상은 우주와 인간, 자연과 세계, 거시와 미시를 전일적으로 바라보는 그의 고유한 사유체계와 실천세계에서 비롯됐다. 이번 심포지엄을 통해 미원이 제시한 새로운 인간의 길, 지구문명의 길이 유례없는 문명사적 위기에 처한 오늘의 인류사회에 던지는 메시지를 탐색한다.

9월 21일(수) 13:00 ~ 13:50	<b>주제</b>	평화는 개선(凱旋)보다 귀하다 - 미원의 철학을 통해 본 평화의 의미 -
	13:00 ~ 13:25	발제 <b>신진숙</b> 경희대학교 교수
	13:25 ~ 13:50	토론 <b>송재룡</b> 경희학원 전문위원

## 세계평화의 날 기념 라운드테이블 회의

세계평화의 날을 기념하는 라운드테이블 회의는 《재앙의 개막, 신생(新生)의 출구를 찾아서》를 주제로 위기의 해법을 찾는다. 인류사회는 지금 붕괴의 먹구름으로 뒤덮여 있다. 지구 가열(global heating)의 포괄적 재앙이 엄습했다. 지구 재앙의 최악의 시나리오를 서둘러 대비해야 할 때다. 이제 지구는 인류가 살 수 없는 행성으로 돌변하고 있다. 40~50도를 오르내리는 유럽, 미주, 동아시아를 비롯한 세계 도처의 폭염, 푸른 산야를 집어삼킨 거친 불길, 급속히 녹아내리는 지구의 빙권, 사막지대 범람을 유발하는 엄청난 폭우, 강바닥을 드러내는 세계 곳곳의 극심한 가뭄, 잇단 팬데믹의 확산. 이에 더해 우크라이나, 동아시아, 중동, 강대국의 불안정한 국제관계 때문에 핵전쟁의 가능성이 그 어느때보다 높아졌다. 우리에게 이제 더 이상 머뭇거릴 시간이 없다. 시간이 다 돼간다. 청록별의 안전과 지속성을 회복할 수 있는 신생(新生)의 출구를 찾아 나서야 한다. 기후재앙과 핵 절멸의 위기에서 벗어나려면 국면 전환이 시급하다. 인간, 자연, 문명, 우주를 바라보는 새로운 인식과 실천이 필요하다. 물질적 생산과 소비, 무한 성장의 욕망에 사로잡힌 무모한 대립과 경쟁, 패권의 질주를 멈추고 지구행성의 존귀한 생명들이 함께 살아갈 수 있는 돌아봄과 보살핌의 윤리가 절실하다.

9월 21일(수) 14:00 ~ 15:30	<b>주제</b>	재앙의 개막, 신생(新生)의 출구를 찾아서		
	14:00 ~ 14:05	영상 상영		
	14:05 ~ 14:35	사회	<b>안병진</b> 경희대학교 교수	
		발제1	“재앙의 시나리오, 어디까지 전개됐나?” <b>이준이</b> 부산대학교 교수	
	발제2	“정치 생태 패러다임의 전환” <b>김환석</b> 국민대학교 명예교수		
14:35 ~ 15:30	종합토론 토론	<b>신충식</b> 경희대학교 교수		

## 세계평화주간 축제

세계평화의 날 의미를 함께 되새기고 교내 구성원과 시민사회에 세계평화의 날을 알리는 축제를 개최한다. 학생들이 직접 참여해 평화의 메시지를 전하고, 그 메시지의 필요성과 인류문명의 평화로운 미래를 위한 관심을 호소한다. 지구적 재앙으로부터 지구를 구하는 해법을 찾아 함께 고민하고 성찰한다.

### UNAI ASPIRE 경희평화포럼

세계평화의 날을 기념하여 국내 대학생과 관련 인사들을 초청해 평화를 위한 실천 대안과 의견을 나누는 공론의 장을 마련한다. UNAI ASPIRE(United Nations Academic Impact, Action by Students to Promote Innovation and Reform Education)는 대학생들의 학술적, 실천적 역량을 통해 세상을 조금씩 세상을 변화시킨다는 비전을 실현하기 위해 학술교류, 봉사활동, 캠페인 및 옹호사업 등 다양한 활동들을 진행해왔다. UNAI ASPIRE Kyung Hee는 매년 Peace BAR Festival의 일환으로 경희평화포럼을 개최해오고 있다.

**일시·장소** 2022년 9월 17일(토) 12:30 ~ 18:00 서울캠퍼스 법과대학 306호

<b>주제</b>	전쟁의 파괴성: 소외된 환경과 인간
<b>대상</b>	UNAI ASPIRE 회원과 일반 학생
<b>주관</b>	UNAI ASPIRE Kyung Hee, UNAI ASPIRE KOREA

### 후마니타스칼리지 세계평화주간 개회식

세계평화주간 선포를 시작으로 후마니타스칼리지의 교육성과를 되짚어보고 세계평화를 위한 교육 실천과 활동을 다짐한다.

**일시·장소** 2022년 9월 20일(화) 11:00 ~ 3:00 서울캠퍼스 청운관 앞마당

<b>주제</b>	경희와 세계평화교육
<b>대상</b>	경희 구성원과 일반 시민
<b>주관</b>	서울 후마니타스칼리지

### 세계시민부스

세계평화를 소망하는 모든 시민들을 대상으로 세계시민 활동 체험·전파, 그리고 행동하는 시민이 될 것을 다짐해보는 축제의 장을 마련한다.

**일시·장소** 2022년 9월 20일(화)~9월 22일(목) 10:30 ~ 16:30 서울캠퍼스 청운관 앞마당

<b>주제</b>	세계시민으로 가는 길		
<b>대상</b>	경희 구성원과 일반 시민		
<b>참여 기관</b>	<b>대외</b>	유네스코 아시아태평양 국제이해교육원 국제개발협력민간협의회 국경선평화학교 제주평화연구원	Global Partnership for Education(GPE) 미래희망기구 세계시민포럼 사단법인 캠프
	<b>교내</b>	서울 후마니타스칼리지 대학생위원회 예술디자인대학 시각디자인학과 글로벌봉사팀 학생기획단	
<b>주관</b>	경희대학교 미래문명원, 경희대학교의료원		

## ‘세계시민으로 가는 길’ 라운드테이블

세계시민부스 참여 기관대표들을 초대해 세계시민으로 가는 길에 관한 자유로운 토론의 장을 마련한다.

**일시·장소** 2022년 9월 22일(목) 14:30 ~ 16:00 서울캠퍼스 청운관 B117호

<b>주제</b>	세계시민으로 가는 길
<b>대상</b>	경희 구성원과 일반 시민
<b>참여 기관</b>	유네스코 아시아태평양 국제이해교육원, 국제개발협력민간협의회, 국경선평화학교, Global Partnership for Education(GPE), 미래희망기구, 세계시민포럼
<b>주관</b>	경희대학교 미래문명원, 서울 후마니타스칼리지

### 시민교육 세미나(특강)

세계평화의 날을 기념하여 학생들에게 세계시민 의식을 함양하고 세계평화에 대한 비전과 미션을 구체화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한다. 강연 소감문 대회를 진행해 세계평화란 주제를 삶에 적용하는 방법을 탐색한다.

**일시·장소** 2022년 9월 22일(목) 19:00 ~ 21:30 서울캠퍼스 청운관 B117호

<b>주제</b>	시민교육
<b>대상</b>	경희 구성원과 일반 시민
<b>주관</b>	서울 후마니타스칼리지

### Peace BAR Festival 2022 카드 뉴스 공모전

세계평화를 주제로 한 카드 뉴스를 공모해 시상하고, 작품을 온·오프라인에 게재해 세계평화에 관한 경희 구성원들의 의식을 고취한다.

**접수** 2022년 9월 5일(월)~9월 18일(일) 19:00 ~ 21:30 **시상** 2022년 9월22일(목)

<b>주제</b>	범지구적 평화 메시지, 기후변화와 평화 등
<b>대상</b>	경희 국제캠퍼스 구성원
<b>주관</b>	국제 후마니타스칼리지

### 평화 시네마 토크콘서트

전쟁과 평화를 다룬 영화 ‘김군’을 감상하고 영화감독과의 토크콘서트를 통해 세계평화의 의미를 되새기는 자리를 마련한다.

**일시·장소** 2022년 9월 21일(수) 16:00 국제캠퍼스 멀티미디어교육관 102호 후마니타스라운지

<b>주제</b>	평화, 쉽 없는 평화: 후마의 메시지
<b>대상</b>	경희 구성원과 일반 시민
<b>주관</b>	국제 후마니타스칼리지

### 경희 평화운동 사진전

경희 평화운동의 여정을 사진으로 되돌아보고, Peace BAR의 의미를 조명하는 전시이다. 대학의 사회적 책임 수행에 대한 성찰과 공감의 기회가 되기를 기대한다.

**일시·장소** 2022년 9월 20일(화)~9월 22일(목) 서울캠퍼스 중앙로 (교시탑~중앙도서관 입구)

<b>주제</b>	경희 평화운동의 역사
<b>대상</b>	경희 구성원과 일반 시민
<b>주관</b>	경희기록관

## 유엔 세계평화의 날 제정을 제안한 미원美源 조영식 박사



조영식 Young Seek Choue  
(1921~2012)

- 평화사상가, 평화운동가
- 경희대학교 설립자, 학교법인 경희학원 학원장
- '잘살기운동' '산림녹화운동' '밝은사회운동' '세계평화운동' '네오르네상스운동' 전개
- 1981년 유엔 세계평화의 날과 해 제정 제안, 제36차 유엔총회에서 채택
- 1999년 서울 NGO 세계대회 개최
- 수상 인문학 최고 영예의 상, 함마르셴드상, 유엔평화훈장, 아인슈타인 평화상, 비폭력을 위한 마하트마 간디상, 만해평화상, 대한민국 정부 국민훈장 무궁화장
- 저서 『민주주의 자유론』(1948), 『문화세계의 창조』(1951), 『인류사회의 재건』(1975), 『오토피아』(1979)

미원은 세계평화 사상가이자 운동가, 실천하는 지식인이자 교육자다. '평화와 창조'를 실현하는 지구공동사회를 주창했다. 전쟁과 질병 없는 인류사회, 창조적 문화세계 건설을 역설하고 전인교육과 공적 실천을 강조했다. 평화로운 지구 공공 가치를 구현하는 세계평화운동을 전개했다. 국가와 민족의 틀을 넘어 인류 보편 가치를 실현하고자 노력했다.

한국전쟁의 폐허를 딛고 '농촌운동' '잘살기운동'을 전개했다. 성장과 팽창, 냉전의 시대를 비판하고 '자연보호운동' '밝은사회운동' '세계평화운동'을 펼쳤다. 1965년 세계대학총장회 (IAUP) 창설을 주도했다. 1981년 유엔이 제정·선포한 '세계평화의 날과 해'를 최초로 제안했다. 1987년 『세계평화대백과사전』을 발간하고, 1999년 서울 NGO 세계대회 (Seoul International NGO Conference)를 개최했다.

미원은 배타적 경쟁과 전쟁 사회를 넘어 인류평화를 향한 전환문명 실현을 위해 헌신했다. 무한 성장의 경제 논리에 매몰되어 유한한 지구환경과 생태를 파괴하는 현대문명을 비판했다. 평화를 실현한 인류사회의 재건이 이상理想이 아니라 반드시 이뤄야 할 현실, 오토피아 (Oughtopia)라고 강조했다. 유엔 세계평화의 날 41주년을 맞은 2022년은 미원 서거 10주기가 되는 해다.

## 설립자 미원美源 조영식 박사 서거 10주기 추모 전시회

### 메시지, 미원의 삶을 담다

경희기록관·중앙박물관은 경희학원 설립자 미원 조영식 박사 서거 10주기에 그가 남긴 메시지의 의미를 되새김으로써 미원의 삶, 사상, 비전을 회고하는 한편 경희정신을 공유하는 기회로 삼고자 한다.

일 시 2022년 9월 19일 (월)~10월 14일 (금) [4주간]

장 소 경희학원 홈페이지(온라인), 서울캠퍼스 중앙박물관 중앙홀 (중앙도서관 4층), 국제캠퍼스 중앙도서관 로비

전시 자료	미원의 저서, 연설문, 인터뷰, 동영상, 음성자료, 시집과 음악 등
전시 내용	세 개의 주제로 구성: · 경희학원 · 평화 · 인간 조영식
주관	경희기록관

## Peace BAR Festival 연혁

경희학원은 1981년 경희의 제안으로 제36차 UN 총회에서 제정된 '세계평화의 날'을 기념해 1982년부터 매년 9월 세계평화의 날에 즈음해 Peace BAR Festival을 개최해왔습니다. 올해로 41회를 맞는 기념행사의 연도별 주제는 다음과 같습니다.

### 1982~1990

1982	현대사회의 위기와 국제평화
1983	세계평화: 그것은 가능한가
1984	UN을 통한 세계평화
1985	UN: 과거, 현재 그리고 미래
1986	국제분쟁의 원인과 해결 방안 모색
1987	변화하는 국제정세와 1980년대 후반의 한반도
1988	동북아 시대와 21세기의 한국, 중국, 일본의 역할
1989	동서 갈등을 넘어선 평화: 1990년대 동북아의 안위와 세계평화
1990	동서 관계의 변화와 평화로운 신국제질서의 모색

### 1991~2000

1991	신국제질서: 21세기 탈이데올로기의 세계
1992	21세기의 민주주의와 신국제질서
1993	동북아시아의 평화: 지역협력을 향하여
1994	도덕과 인간성 회복
1995	관용, 도덕과 인간성 회복
1996	21세기, 세계공동체를 향한 평화전략과 UN의 역할
1997	21세기의 비전과 현실: 동아시아의 역할
1998	새로운 천년을 향한 인류의 비전: 현대문명을 넘어서
1999	21세기, 평화는 가능한가
2000	21세기의 글로벌 거버넌스

### 2001~2010

2001	문명 간 대화를 통한 지구공동사회의 건설
2002	Pax UN을 통한 지구공동사회의 건설
2003	네오르네상스를 통한 지구공동사회의 건설
2004	평화를 위한 긴급 과제: 테러리즘의 극복
2005	이념 이후의 시대: 21세기 대안문명을 말한다
2006	21세기 보편의 재발견: 자유와 평등을 넘어서
2007	전환적 도전: 새로운 인성과 공동체를 찾아서
2008	미래문명, 미래대학: 지식과 실천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찾아서
2009	경희 평화 워크숍
2010	몸과 문명: 나는 몸이다

### 2011~2021

2011	몸과 재앙: 문명의 새로운 가능성을 찾아서
2012	인간, 정치, 문명
2013	문명과 고등교육: 큰 배움을 찾아서
2014	우주의 인간, 인간의 공적 실천
2015	함께할 우리의 가치, 그 가능성의 미래
2016	지구문명의 미래: 실존혁명을 향하여
2017	전환의 시대: 촛불과 평화의 미래
2018	전환문명 시대의 한반도: 그 가치와 철학
2019	미래세대에게 미래는 있는가?
2020	긴급성의 시대, 정치 규범의 새 지평
2021	전환문명의 전위, 어디를 향하고 있는가?